

기술·가정교과 운영실태와 평가^{1)*}
— 경남지역 소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김 상 희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Kyungnam Area

Kim, Sang-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subject matters and goals, and to know the operation of Technology·Home Economics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Kyungnam area. Data were collected from 235 teachers with the questionnaire by mail.

The results were following:

1. The major of teachers was Technology·Industry 30.6%, Home Economics 67.2%. The teaching style was the team-teaching 51.1%, one's responsible teaching 41.3%. The team-teaching was operated more frequently in high schools than middle schools. The most difficulties were the shortage of subject's hours, the shortage of practice hours, etc.

2. The overall evaluation of subject's matters and goals were about middle levels, but the items of the job-course education and the interrelatednes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ere a little low levels.

3. The speciality and the utility of the subject's matters were evaluated highly oneself for one's major, but those of different major were lowly so. The sector of Computer was shared commonly with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4. The attitudes toward the separation or integration of Technology·Home Economics in the 8th curriculum revision were half and half. If Technology·Home Economics will be separated, each subject need 2 hours per week.

1) 교신저자 : 김상희(hekshvp@kyungnam.ac.kr)

*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주제어(Key Words) : 기술·가정교과의 운영(operation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교과내용 및 목표 평가(evaluation of subject's matters and subject's goals),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speciality and the utility of subject's matters), 향후 개정 방향(attitudes toward 8th curriculum revision)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방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교과중의 하나가 실업·가정교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에서 독립교과이던 기술·산업과 가정의 기술·가정교과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교과의 정체성 문제, 기술·가정교과를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교사의 자격문제 등이 심각하게 거론되었으나 2000년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이 수행되기 시작하여 급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기술·가정이 이수되면서 기술·가정교과는 중학교 1학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 학년에 적용되고 있다.

기술·가정교과는 이미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시 기술, 가정, 기술·가정의 3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게끔 한 적이 있었으므로 엄밀하게 본다면, 기술·가정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허경철, 2001) 기술·가정교과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그동안 보고된 관련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시기적으로 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과목을 선택한 일부 중학교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이후의 연구로 나뉘어질 수 있겠다. 7차 교육과정 후의 기술·가정교과에 관한 연구로는 박노선 외(2002), 이연숙 외(2002), 양순분(2002), 손순옥(2002) 등이 있으나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의 수업이 운영되기 이전에 수행되었던 것이거나 후에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 시기가 7차 교육과정 시행 후 한 학기 정도 지났던 시점이어서 내용에서 현실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선행연구들 중 몇몇은 내용상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변인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어서 각각의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 시행 하에서 기술·가정교

과가 중·고등학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담지도 혹은 전담지도를 하는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기술·가정교과의 교과내용 및 교과목표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를 통하여 기술·가정교과의 현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어떠한 지를 밝혀 이를 8차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실태, 교과내용 및 교과목표에 대한 적합성,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8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가정교과가 가지고 있는 일선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비하여 가정교과가 나아가야 할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교과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는 기술·가정교과의 교과내용 및 교과목표에 대한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는 스스로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넷째,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는 향후 8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기술·가정교과의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Ⅲ. 선행연구의 동향

기술·가정교과는 이미 제 5차 교육과정에서 기술, 가정, 기술·가정의 3과목 중 한 과목으로 등장하였던 교과목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된 기술·가정교과에 관련된 연구는 5차 교육과정 하에서 수행된 연구와 7차 교육과정 하에서 수행된 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1. 5차 교육과정 하의 기술·가정교과 연구의 동향

이 시기의 기술·가정교과는 일부 중학교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양적으로 많다고 할 수 없다. 연구대상이 학생, 교사, 학부모에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었는데, 박인애(1990)는 서울시내 24개 중학교 교사와 2개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채정숙(1993)은 서울시내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박인애의 연구에서는 교과의 운영 및 교과내용의 필요도 등을 다루었는데,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에 따른 교과내용의 필요도가 높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가정과 내용은 여학생이, 기술과 내용은 남학생이 필요도를 높게 보았으며, 교사와 학생간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필요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업운영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교사자신, 교과서, 내용구성, 보조학습자료, 학생의 태도 순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통합교과의 내용구성을 위하여 성교육, 컴퓨터이용, 직업과 진로, 예절교육의 필요도를 높게 보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채정숙의 연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학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필요도를 달리 보고 있었다. 즉 남학생에게 기술과 부문, 여학생에게 가정과 부문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는데,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이 남학생이 가정과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학생들도 성별에 따라 남학생은 기술에 대하여 여학생은 가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남녀 학생들은 교과 내용면에서는 가족생활 단원과 컴퓨터 단원에 대하여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2. 7차 교육과정 하의 기술·가정교과 연구의 동향

제 5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기술·가정교과가 전면적으로 통합·실시되면서 일선교육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되었다. 두 교과의 상호 이질적 특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하여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행정과 가르치는 교사의 측면에서도 모두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거의가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본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담당교사의 자격 및 전문성 문제, 수업방식을 포함한 운영의 문제 등이 주된 연구내용이었는데, 박명주 외(2001), 광노선 외(2002), 이연숙 외(2002), 양순분(2002), 손순옥(2002) 등의 연구가 해당된다. 이들 연구 중에서 양순분과 손순옥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수행된 연구이며, 양순분과 손순옥의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후에 수행되었으나 그 시기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선행연구들은 기술·가정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박명주 외의 연구에서 기술교과 교사가 가정교과 교사에 비하여 기술적 관점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행의 기술·가정교과와 같이 가정교과와 기술교과 교사가 상호지원적 성격의 교육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칫 가정교과의 성격이 기술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가정교과의 실천적 성격이 기술적 성격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광노선 외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교사, 교장, 교육전문직은 기술·가정교과의 통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문제, 과원문제, 자격문제 등을 심각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제 5차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한국교육개발원(1986)의 보고서에서 교사집단이 기술·가정의 통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과는 상반되고 있어서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교과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분담지도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으며, 학교입장에서는 전담지도를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인근 학교의 기술과 교사와 가정과교사의 순회지도를 제안하고 있었다. 이연숙 외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의

96.2%가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운영시 전문성문제, 과원문제, 자격문제, 교과 운영방법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을 지적하였다. 교과 지도방법에서 분담지도보다 전담지도에 더 큰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기술영역과 컴퓨터영역에서 자신감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론보다는 실기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후에 수행된 양순분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교사의 절반 가량이 기술·가정관련 교과목과 실제 교수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비전공영역에 대하여 자신감이 부족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분담지도를 원하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기술교과와 가정교과가 분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현행과 같은 통합형태를 유지한다면 분담지도를 요구하고 있었다. 손순옥의 연구에서도 그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가정과 교사들이 기술·가정과를 전담하고 있었으며, 이 경우 교사들은 비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기술·가정과 교사로서의 만족도도 보통보다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청 인터넷의 '학교찾기'에서 경남지역 소재의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총 학급수가 5학급 미만이거나 총 학급수가 알려져 있지 않는 학교, 분교 등은 기술·가정교과의 독립적인 운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중학교 189개교, 고등학교 134개교의 총 323개교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선행연구(오화자 외, 1996; 이연숙 외, 2002)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 구성 후 현직 중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한 것이다. 설문지의 내용은 교사의 개인적 속성에 관한 10문항, 근무학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7문항,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실태(수업방

식, 기술과/가정과 의 실습빈도와 내용, 수업시 애로 사항 등)에 관한 6문항, 기술·가정교과 내용 및 교과목표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8문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를 위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36문항, 8차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2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즉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한 내용의 설문지를 가정교과와 기술교과 교사가 각각 응답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학교당 2부씩 우송하였다. 그리하여 중학교 189개교, 고등학교 134개교의 총 323개교에 646부를 우송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2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다.

조사대상학교에 각 2부씩 설문지를 우송하였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1부씩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43부였으나, 기입이 부실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을 제외한 235부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효 회수율은 36.4%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교사와 학교의 일반적 속성을 다음의 <표 1>에 정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의 71.9%가 여자였으며, 연령은 40대가 47.2%였다. 주전공은 기술교과와 산업관련교과를 합하여 30.6%, 가정교과가 67.2%로 나타나, 응답자의 2/3가 가정교과 전공교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경력은 21년 이상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11년 이상이 약 80% 가까이 되었다. 이에 비하여 부전공은 기술, 가정, 기술·가정, 산업관련교과, 실업교과와는 관련이 없는 기타 교과 등으로 다양하였다. 부전공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15.3%), 여기에 무응답을 합하게 되면 상당수의 교사(약 43%)가 부전공에는 관

〈표 1〉 조사대상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 속성

교사의 일반적 속성			학교의 일반적 속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	남자	60(25.5)	학교유형	중학교	139(59.1)
	여자	169(71.9)		고등학교	96(40.9)
연령	20대	26(11.1)	설립 유형	국·공립	128(54.5)
	30대	54(23.0)		사립	107(45.5)
	40대	111(47.2)	학급 규모	9학급이하	35(14.9)
	50대이상	40(17.0)		10-19학급	61(26.0)
전공	기술·산업	72(30.6)		20-29학급	62(26.4)
	가정	158(67.2)	30학급이상	77(32.8)	
경력	5년이하	27(11.5)	기술 교사수	없다	65(27.6)
	6-10년	23(9.8)		1명	81(34.5)
	11-15년	50(21.3)		2명	58(24.7)
	16-20년	51(21.7)		3명이상	31(13.2)
	21년이상	79(33.6)	가정 교사수	없다	19(8.1)
부전공	기술	30(12.8)		1명	100(42.6)
	가정	17(7.2)		2명	63(26.8)
	기술·가정	30(12.8)		3명이상	53(22.5)
	산업관련교과	27(11.5)		산업 교사수	없다
	기타	30(12.8)	1명		22(9.4)
	없다	36(15.3)	2명		7(3.0)
		3명이상	6(2.5)		
합계		235(100.0)	합계		235(100.0)

1) 무응답은 제외하였으므로 빈도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심이 없거나 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일반적 속성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59.1%, 고등학교가 40.9%이었으며, 국·공립과 사립이 약 반반정도이다. 학급규모에서 9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14.9%로 다소 낮으며, 그 외는 학급규모가 골고루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조사대상학교의 선정 시 5학급 미만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진 것이라 사료된다. 기술교과, 가정교과, 산업관련교과의 교사가 각각 몇 명 정도 근무하는 지를 살펴보면, 기술교과 교사가 1명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7.6%이었으며, 가정교과 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응답한 학교의 경우 기술교과 교사가 근무하지 않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기술·가정교과 수업의 운영 실태

기술·가정교과 수업의 운영실태에는 수업의 운영에 관련되는 수업방식, 실습빈도와 내용, 수업 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1) 수업방식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를 통합교과로 보았을 때, 이 교과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일선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각각의 전문교사가 자신들의 전공을 나누어 수업을 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하면 학교현장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전담하는 경우보다 번거롭고 교사간의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교사가 모두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점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표 2〉 학교유형별 기술과, 가정과의 교사의 구성

단위:명(%)

		중학교 가정과교사		고등학교 가정과 교사		합 계
		無	有	無	有	
기술과 교사	無	4(2.9)	32(23.0)	3(3.1)	26(27.1)	65(27.7)
	有	6(4.3)	97(69.8)	6(6.3)	61(63.5)	170(72.3)
합 계		10(7.2)	129(92.8)	9(9.4)	87(90.6)	235(100.0)
		139(100.0)		96(100.0)		

〈표 3〉 기술·가정교과의 수업방식

단위:명(%)

항목		운영방식	분담	전담	합계	검증치
학교 유형	중학교		63(47.7)	69(52.3)	132(100.0)	$\chi^2 = 7.817^{**}$ df = 1
	고등학교		57(67.1)	28(32.9)	85(100.0)	
학급 규모별	9학급이하		11(33.3)	22(66.7)	33(100.0)	$\chi^2 = 11.730^{**}$ df = 3
	10-19학급		34(59.6)	23(40.4)	57(100.0)	
	20-29학급		28(49.1)	29(50.9)	57(100.0)	
	30학급이상		47(67.1)	23(32.9)	70(100.0)	
교사 주전공	기술·산업		40(63.5)	23(36.5)	63(100.0)	$\chi^2 = 2.351$ n.s df = 3
	가정		77(52.0)	71(48.0)	148(100.0)	

**p<.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중·고등학교에 따라 기술교과 교사와 가정교과 교사가 1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 교사의 유무를 교차시켜 본 결과,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교과 교사와 가정교과 교사 모두 1명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가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교과 교사가 없고 가정교과 교사만 근무하는 경우가 중학교 23.0%, 고등학교 27.1%인 반면에, 가정교과 교사가 없고 기술교과 교사만 근무하는 경우는 중학교 4.3%, 고등학교 6.3%로 나타나 가정교과 교사의 근무율이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기술교과 교사와 가정교과 교사가 모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중학교 69.8%, 고등학교 63.5%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가정교과의 수업을 분담하여 운영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교사들이 기술·가정교과를 각각의 전공으로 나누어 분담수업을 하고 있는지 한 교사가 전담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분담수업이 51.1%, 전담수업이 41.3%, 기타 7.6%로 나타

나서 분담수업이 전담수업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표 생략). 이 결과는 손순옥(2002)의 연구결과에서 가정과 교사의 전담지도가 많았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 연구의 조사시기가 이미 7차 교육과정의 거의 폐도에 오른 시점이란 것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수업방식을 학교유형, 학급규모별, 교사의 주전공별로 나누어 교차분석한 결과(표 3), 중학교에서는 분담수업과 전담수업 비율이 각각 47.7%, 52.3%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에서는 분담수업이 67.1%, 전담수업이 32.9%로 나타나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의 분담수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p<.01수준). 이것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의 수업에 전문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교사들은 주전공 수업만으로 법정시수에 미달하면 타교과목이라도 수업을 해서 수업시수를 채워야 하는 형편이므로, 기술·가정교과 수업의 분담여부는 학급 규모와도 상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학급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급 규모가 클수록 분담수업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

〈표 4〉 기술·가정교과 수업의 실습 빈도

단위:명(%)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교과 실습	가정교과 실습	기술교과실습	가정교과실습
0회	15(10.8)	14(10.1)	27(28.1)	6(6.3)
1회	27(19.4)	37(26.6)	14(14.6)	18(18.8)
2회	20(14.4)	29(20.9)	7(7.3)	31(32.3)
3-4회	29(20.9)	28(20.1)	7(7.3)	15(15.6)
5회이상	17(12.2)	7(5.0)	3(3.1)	2(2.1)
무응답	31(22.3)	24(17.3)	38(39.6)	24(25.0)
합 계	139(100.0)		96(100.0)	

〈표 5〉 기술·가정교과의 실습내용(복수응답)

단위:명(%)

기술실습내용	중학교 (n=139)	고등학교 (n=96)	가정실습내용	중학교 (n=139)	고등학교 (n=96)
②플라스틱 제품만들기	8(5.8)	1(1.0)	②직물실험	2(1.4)	1(1.0)
③금속품 만들기	3(2.2)	0	③재생비누 만들기	8(5.8)	2(2.1)
④종이를 이용한 물건만들기	11(7.9)	4(4.2)	④세제실험	0	0
⑤기계요소다루기(자전거 등)	16(11.5)	4(4.2)	⑤섬유수축실험	1(0.7)	0
⑥운동물체 다루기	13(9.4)	0	⑥옷 만들기	54(38.8)	9(9.4)
⑦컴퓨터 다루기	52(37.4)	11(11.5)	⑦옷을 재활용하기	13(9.4)	0
⑧수경재배 해보기	11(7.9)	0	⑧식사랑 알아보기	11(7.9)	0
⑨도면 그리기	71(51.1)	15(15.6)	⑨식단짜기	50(36.0)	10(10.4)
⑩동력장치 다루기	4(2.9)	6(6.3)	⑩조리실습	87(62.6)	48(50.0)
⑪모형교량 만들기	7(5.0)	8(8.3)	⑪초대상차림	8(5.8)	6(6.3)
			⑫직물이용생활용품 만들기	8(5.8)	34(35.4)
			⑬주거공간 꾸미기	27(19.4)	7(7.3)

($p < .01$ 수준). 대체로 중소도시의 학교에서는 학급규모가 크고 군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급규모가 작게 마련이므로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담수업을 할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교사의 주전공에 따라서는 기술·산업교과의 교사가 가정교과 교사보다 분담수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실습빈도와 내용

기술·가정교과는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정교과의 연간 실습빈도와 내용, 수업 시 애로사항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2학년도

에 이미 실습수업을 한 경우는 물론 아직 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할 계획의 내용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실습빈도와 내용을 기술과 가정교과별, 중·고등학교별로 나누어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한 실습내용은 7차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추출하여 정리한 것인데, 교사들로 하여금 해당사항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는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모두 비슷한 정도의 실습을 하고 있었으나 5회 이상을 응답한 경우는 기술교과 내용이 더 많았다. 또한 연간 실습수업을 한번도 안 하였거나

〈표 6〉 기술·가정교과 수업시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명(%)

	학교유형		교사 주전공		수업방식	
	중학교 (n=139)	고등학교 (n=96)	기술·산업 (n=72)	가정 (n=158)	분담 (n=120)	전담 (n=97)
①교과의 전문지식의 부족	49(35.3)	27(28.1)	25(34.7)	59(37.3)	30(25.0)	52(53.6)
②수업자료의 부족	29(20.9)	34(35.4)	21(29.2)	54(34.2)	36(30.0)	34(35.1)
③학생들의 흥미부족	40(28.8)	28(29.2)	23(31.9)	58(36.7)	46(38.3)	29(29.9)
④실습시간의 부족	68(48.9)	34(35.4)	35(48.6)	80(50.6)	63(52.5)	47(48.5)
⑩연구시간의 부족	19(13.7)	5(5.2)	7(9.7)	20(12.7)	11(9.2)	14(14.4)
⑤교과자체수업시수의 불충분	62(44.6)	33(34.4)	27(37.5)	73(46.2)	58(48.3)	38(39.2)
⑥실습도구의 부족	30(21.6)	36(37.5)	32(44.4)	47(29.7)	42(35.0)	35(36.1)
⑫실습실의 부족	30(21.6)	31(32.3)	29(40.3)	43(27.2)	37(30.8)	30(30.9)
⑬참고서 부족	14(10.1)	10(10.4)	5(6.9)	23(14.6)	14(11.7)	14(14.4)
⑦과다한 수업내용	34(24.5)	8(8.3)	16(22.2)	28(17.7)	21(17.5)	21(21.6)
⑧실습에 대한 부족한 행정지원	39(28.1)	25(26.0)	29(40.3)	40(25.3)	32(26.7)	35(36.1)
⑨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교과내용	14(10.1)	11(11.5)	15(20.8)	14(8.9)	11(9.2)	14(14.4)
⑪실생활에 이용하기 어려운 교과내용	20(14.4)	9(9.4)	12(16.7)	19(12.0)	18(15.0)	13(13.4)
⑭기타	5(3.6)	2(2.1)	3(4.2)	4(2.5)	5(4.2)	2(2.1)

계획도 안 된 경우도 기술, 가정교과 모두 10%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고등학교에서는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별로 실습빈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정교과에 비하여 기술교과의 실습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등학교의 기술교과 실습수업이 한번도 없는 경우가 28.1%로 상당수 나타났으나, 가정교과는 6.3%로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였으며, 2회가 32.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중학교에서의 기술교과 실습은 '도면그리기' 51.1%, '컴퓨터다루기' 37.4%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정교과 실습은 '조리실습' 62.6%, '옷만들기' 38.8%, '식단짜기' 36.0%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5). 그러나 고등학교에서의 기술교과나 가정교과 실습은 중학교와 비교해 볼 때 빈도에서 차이가 날 뿐 내용적 차이는 별로 없었다. 단지 가정교과 실습에서 '직물 이용 생활용품 만들기'(35.4%)가 '조리실습'의 50.0%에 이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중·고등학교간의 실습빈도 차이는 기술·가정교과가 고등학교에서는 1년 과정이지만 중학교에서는 3년 과정으로 이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기술·가정교과의 실습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교과내용과 교육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실습수업은 학생들에게 기술·가정교

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학습효과를 주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적 수업에서는 실습빈도와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수업시 애로사항

기술·가정교과 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학교유형, 교사의 주전공 및 수업방식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의 〈표 6〉에 나타내었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실습시간의 부족' 48.9%, '교과 자체 수업시수의 부족' 44.6%, '교과의 전문지식의 부족' 35.3%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실습도구의 부족' 37.5%, '수업자료의 부족' 35.4%, '실습시간의 부족' 35.4%, '교과 자체 수업시수의 부족' 34.4%, '실습실의 부족' 32.3%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애로사항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보다 실습도구나 수업자료 및 실습실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설비적 측면의 애로사항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이미 6차 교육과정 때부터 남너필수로 이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수업도구 및 자료 등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등학교는 7차 교육과정에 들어

서서 수업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설비적 측면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라 생각된다.

교사의 주전공에 따라서 보면, 기술·산업교과 교사는 '실습시간의 부족' 48.6%, '실습도구의 부족' 44.4%, '실습실의 부족' 40.3%, '실습에 대한 부족한 행정지원' 40.3%, '교과 자체 수업시수의 부족' 37.5% 등을 꼽고 있으며, 가정교과 교사는 '실습시간의 부족' 50.6%, '교과 자체 수업시수의 부족' 46.2%, '교과의 전문지식의 부족' 37.3%, '학생들의 흥미부족' 36.7% 등을 꼽고 있었다. 기술·산업교과 교사들이 가정교과 교사들보다 실습실이나 실습도구 행정지원 등에 대한 애로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는 가정교과보다 기술교과의 실습을 위한 시설이나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업방식에 따른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분담수업에서는 '실습시간의 부족' 52.5%, '교과 자체 수업시수의 부족' 48.3%, '학생들의 흥미부족' 38.3% 등을 꼽고 있으며, 전담수업에서는 '교과의 전문지식의 부족' 53.6%, '실습시간의 부족' 48.5%, '교과 자체 수업시수의 부족' 39.2%, '실습도구의 부족' 36.1%, '실습에 대한 부족한 행정지원' 36.1%, '학생들의 흥미부족' 35.1% 등을 꼽고 있었다. 즉 분담수업은 주

당 2~3시간을 두 명의 교사가 나누어 수업함으로써 실습시간의 부족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전담수업에서는 어느 전공교과의 한 명의 교사가 전담하므로써 타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실습시간의 부족과 교과 자체의 수업시수의 부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실습도구 및 실습실, 수업자료 등의 부족은 고등학교와 기술·산업교과 교사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전담수업방식에서는 교과의 전문지식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서 수업의 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과 주요과목이 아닌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학생들의 흥미부족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교과내용 및 목표의 적합성 평가

기술·가정교과의 전반적 교과내용이 시대나 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교과목표에는 얼마나 잘 부합된다고 보는 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교과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시대 사회적 요구,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상호관계적 측면, 학생들

〈표 7〉 기술·가정교과의 교과내용 및 교과목표의 적합성 평가

	평균 (SD)	학교유형			교사 주전공			수업방식			
		중학교	고등학교	t-값	기술,산업	가정	t-값	분담	전담	t-값	
교과내용	앞으로의 사회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3.21 (0.70)	3.25 (0.67)	3.18 (0.74)	0.74 n.s.	3.23 (0.70)	3.21 (0.71)	0.15 n.s.	3.25 (0.76)	3.21 (0.65)	0.38 n.s.
	기술과, 가정과의 내용이 체계적이다	3.01 (0.75)	3.07 (0.74)	2.95 (0.76)	1.18 n.s.	2.97 (0.74)	3.04 (0.76)	-0.62 n.s.	3.03 (0.78)	3.02 (0.74)	0.04 n.s.
	기술과, 가정과의 내용이 상호연계적이다	2.29 (0.88)	2.37 (0.88)	2.18 (0.87)	1.65 n.s.	2.28 (0.81)	2.30 (0.92)	-0.14 n.s.	2.31 (0.89)	2.30 (0.92)	0.09 n.s.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적합하다.	2.92 (0.79)	3.04 (0.73)	2.77 (0.84)	2.58*	2.86 (0.85)	2.93 (0.74)	-0.64 n.s.	2.97 (0.84)	2.90 (0.69)	0.74 n.s.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적합하다.	3.29 (0.80)	3.30 (0.76)	3.29 (0.86)	0.07 n.s.	3.17 (0.76)	3.32 (0.80)	-1.38 n.s.	3.40 (0.84)	3.18 (0.74)	2.07*
교과목표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	3.61 (0.79)	3.64 (0.74)	3.57 (0.87)	0.66 n.s.	3.48 (0.73)	3.66 (0.80)	-1.59 n.s.	3.64 (0.83)	3.58 (0.75)	0.51 n.s.
	자신의 적성개발과 진로 탐색	3.08 (0.78)	3.16 (0.75)	2.96 (0.81)	1.96*	2.97 (0.84)	3.11 (0.74)	-1.24 n.s.	3.08 (0.85)	3.13 (0.68)	-0.46 n.s.
	자신의 미래생활설계 및 준비력 향상	3.10 (0.73)	3.12 (0.71)	3.07 (0.78)	0.44 n.s.	3.00 (0.74)	3.13 (0.73)	-1.29 n.s.	3.13 (0.82)	3.07 (0.64)	0.53 n.s.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에 대한 요구 등 5가지 항목, 교과목표에 대하여는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과에서 요구하는 3가지 목표로 총 8가지 항목에 대하여 5단계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표 7).

교과내용의 적합성은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인 3.0을 전후한 정도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적합하다(3.29)', '앞으로의 사회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3.21)'가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내용이 체계적이다(3.01)',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적합하다(2.92)',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내용이 상호 연계적이다(2.29)'의 차례로 나타나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내용의 상호 연계성은 매우 낮은 평가를 보였다.

교과목표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의 습득(3.61)'이 가장 적합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이 '자신들의 미래생활설계 및 준비력 향상(3.10)', '자신들의 적성개발과 진로탐색(3.0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교사들은 현행의 기술·가정교과

가 가지는 교과목표에서 기초능력 습득에서는 어느 정도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학생들의 미래생활설계 및 준비력 향상이나 학생들의 적성 탐색 및 진로탐색에서는 보통 수준(3.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유형, 교사의 주전공 및 수업방식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적합하다', '자신들의 적성개발과 진로탐색'에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 차를 나타내 보였으나 그 외 다른 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기술·가정교과의 교과내용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적합하며, 교과목표에서 학생들의 적성개발과 진로탐색에서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었다. 교사의 주전공에 따라서는 통계적인 유의 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업방식에 따라서는 분담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가 전담수업의 교사보다 교과내용이 학생들의 생활교육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었다($p < .05$ 수준).

〈표 8〉 교과내용의 전문성 평가

		교사 주전공			수업방식		
		기술·산업	가정	t-값	분담	전담	t-값
중 1	나와 가족의 이해	3.50(1.13)	4.34(0.76)	-5.37***	4.06(0.96)	4.11(0.97)	-0.33 n.s.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2.92(1.17)	4.42(0.82)	-8.88***	3.91(1.21)	4.13(1.07)	-1.16 n.s.
	미래의 기술	4.08(0.78)	3.16(1.03)	5.33***	3.36(1.09)	3.44(0.99)	-0.42 n.s.
	제도의 기초	4.42(0.86)	3.05(1.12)	7.28***	3.44(1.32)	3.47(1.10)	-0.17 n.s.
	컴퓨터와 정보처리	4.06(0.78)	3.14(0.96)	5.49***	3.35(1.07)	3.35(0.93)	-0.02 n.s.
중 2	의복마련과 관리	2.69(1.08)	4.43(0.77)	-11.24***	3.96(1.16)	4.00(1.17)	-0.19 n.s.
	기계의 이해	4.02(0.98)	2.67(1.04)	7.54***	3.11(1.31)	3.07(1.10)	0.23 n.s.
	재료의 이용	4.12(0.89)	2.79(1.06)	7.37***	3.18(1.29)	3.23(1.07)	-0.25 n.s.
	컴퓨터와 생활	3.96(0.89)	3.18(0.96)	4.54***	3.47(1.04)	3.33(0.98)	0.79 n.s.
	자원의 관리와 환경	3.77(0.85)	4.15(0.84)	-2.52*	3.93(0.84)	4.18(0.81)	-1.88 n.s.
중 3	산업과 진로	3.98(0.84)	3.43(0.94)	3.36***	3.54(0.93)	3.56(0.95)	-0.11 n.s.
	가족의 식사관리	2.91(1.02)	4.43(0.75)	-10.12***	3.97(1.09)	4.09(1.08)	-0.63 n.s.
	전기·전자기술	3.90(0.82)	2.49(0.95)	8.45***	2.79(1.16)	2.97(1.09)	-0.94 n.s.
고 1	가족생활과 주거	3.54(0.96)	4.09(0.92)	-3.28***	3.86(0.93)	4.02(0.97)	-1.03 n.s.
	가정생활의 설계	3.13(1.00)	4.37(0.73)	-8.54***	4.09(0.98)	4.09(0.92)	-0.01 n.s.
	가정생활의 실제	2.73(1.06)	4.17(0.78)	-9.36***	3.84(1.07)	3.77(1.08)	0.46 n.s.
	에너지와 수송기술	4.11(0.91)	2.76(0.99)	8.19***	3.26(1.18)	3.03(1.07)	1.26 n.s.
	건설기술의 기초	3.99(0.96)	2.49(1.01)	8.58***	2.99(1.32)	2.79(1.06)	1.02 n.s.

* $p < .05$, ***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

(1) 전문성 평가

현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술·가정교과의 대단원 영역에 대하여 교사자신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교사의 주전공과 수업방식에 따라 t-검증하였다(표 8). 여기에서 전문성은 교사들이 기술·가정교과의 내용에 대하여 갖추고 있어야 할 전문 지식으로 정의하고, 전문성 평가는 교사 스스로 이에 대한 자기평가이다.

수업방식에 따라서는 전문성 평가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으나, 교사의 주전공에 따라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산업교과 교사는 기술교과 영역에서 가정교과 교사들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가정교과 교사들은 가정교과 영역에서 기술교과 교사들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즉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영역에서는

스스로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타 전공에 대하여는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연숙 외(2002), 양순분(2002)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기술·산업교과 교사들이 보통이하의 낮은 평가를 보인 영역은 '의복마련과 관리(2.69)', '가정생활의 실제(2.73)', '가족의 식사관리(2.91)',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2.92)'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의복마련과 관리에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가정교과 교사들은 '전기·전자기술(2.49)', '건설기술의 기초(2.49)', '기계의 이해(2.67)', '에너지와 수송기술(2.76)', '재료의 이용(2.79)' 등으로 컴퓨터영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술교과 영역에서 보통이하의 낮은 전문성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기술과 건설기술의 기초에는 특히 낮은 평가를 보였다. 컴퓨터영역은 기술교과 교사들에 비하여 가정교과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보통수준은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컴퓨터영역은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중간적 영역으로 위치하고

〈표 9〉 교과내용의 활용도 평가

		교사 주전공			수업방식		
		기술·산업	가정	t-값	분담	전담	t-값
중 1	나와 가족의 이해	3.97(0.73)	4.34(0.75)	-2.92**	4.20(0.73)	4.32(0.76)	-1.00 n.s.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3.71(0.78)	4.24(0.76)	-3.95***	4.03(0.76)	4.17(0.84)	-1.09 n.s.
	미래의 기술	3.67(0.86)	3.48(0.80)	1.24 n.s.	3.54(0.81)	3.48(0.80)	0.41 n.s.
	제도의 기초	3.57(0.94)	3.17(0.77)	2.76**	3.34(0.83)	3.25(0.84)	0.62 n.s.
	컴퓨터와 정보처리	4.05(0.80)	3.89(0.89)	1.08 n.s.	3.93(0.75)	3.98(0.94)	-0.38 n.s.
중 2	의복마련과 관리	3.40(0.77)	3.69(0.81)	-1.98*	3.64(0.73)	3.63(0.87)	0.11 n.s.
	기계의 이해	3.43(0.79)	2.91(0.88)	3.52**	3.18(0.87)	2.97(0.92)	1.42 n.s.
	재료의 이용	3.53(0.89)	3.08(0.91)	2.84**	3.33(0.93)	3.07(0.91)	1.74 n.s.
	컴퓨터와 생활	4.02(0.95)	4.01(1.00)	0.37 n.s.	4.03(0.97)	4.01(1.04)	0.20 n.s.
중 3	자원의 관리와 환경	3.68(0.69)	3.78(0.87)	-0.62 n.s.	3.71(0.79)	3.81(0.85)	-0.75 n.s.
	산업과 진로	3.66(0.82)	3.44(0.77)	1.57 n.s.	3.52(0.73)	3.44(0.79)	0.66 n.s.
	가족의 식사관리	3.55(0.77)	3.97(0.76)	-3.08**	3.85(0.78)	3.84(0.81)	0.12 n.s.
	전기·전자기술	3.50(0.68)	3.09(0.79)	3.04**	3.38(0.79)	3.02(0.80)	2.76**
고 1	가족생활과 주거	3.48(0.78)	3.57(0.86)	-.57 n.s.	3.53(0.84)	3.53(0.86)	0.01 n.s.
	가정생활의 실제	3.47(0.67)	3.96(0.81)	-3.58***	3.84(0.79)	3.81(0.78)	0.20 n.s.
	가정생활의 실제	3.29(0.68)	3.66(0.72)	-3.00**	3.54(0.76)	3.61(0.66)	-0.56 n.s.
	에너지와 수송기술	3.85(0.78)	3.21(0.79)	4.89***	3.57(0.84)	3.23(0.80)	2.60**
고 1	건설기술의 기초	3.43(0.87)	2.78(0.85)	4.54***	3.17(0.91)	2.77(0.82)	2.96**

*p<.05, **p<.01,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있다고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기술·산업교과 교사들이 가정교과 영역에 대한 전문성 평가보다 가정교과 교사들이 기술교과 영역에 대한 전문성 평가가 더 낮게 나타났다.

(2) 활용도 평가

교과내용의 활용도란 기술·가정교과의 대단원 영역이 학생들의 현재 또는 미래의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게 하여 교사의 주전공과 수업방식에 따라 t-검증하였다(표 9). 교사의 주전공에 관계없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여기는 영역은 '컴퓨터와 생활', '컴퓨터와 정보처리'로 나타났으며, '미래의 기술', '자원의 관리와 환경', '산업과 진로', '가족생활과 주거'의 영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 외의 나머지 영역에서는 각자의 자신의 전공영역의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기술·산업교과 교사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본 영역은 '컴퓨터와 정보처리(4.05)', '컴퓨터와 생활(4.02)', '나와 가족의 이해(3.97)', '에너지와 수송기술(3.85)'였으며, 가장 활용도가 낮다고 여긴 영역은 '가정생활의 실제(3.29)', '건설기술의 기초(3.43)', '가정생활의 설계(3.47)'였다. 이에 비하여 가정교과 교사들이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본 영역은 '나와 가족의 이해(4.34)',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4.24)', '컴퓨터와 생활(4.01)'로 나타났으며, 가장 활용도가 낮다고 여긴 영역은 '건설기술의 기초(2.78)', '기계의 이해(2.91)', '재료의 이용(3.08)', '전기·전자기술(3.09)' 등으로 나타났다.

수업방식에 따라서는 '전기·전자기술'에서 분담 3.38 전담 3.02, '에너지와 수송기술'에서 분담 3.57

전담 3.23, '건설기술의 기초'에서 분담 3.17 전담 2.77로 나타나 분담수업을 취하고 있는 교사가 전담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p < .01$ 수준). 그 외의 나머지 영역에서는 수업방식에 의한 활용도 평가에는 통계적인 유의 차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고학년의 기술영역이 될수록 전담보다는 분담수업교사가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전기·전자기술'은 중학교 3학년의 기술영역이고, '에너지와 수송기술', '건설기술의 기초'는 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영역이다. 따라서 고학년의 기술영역이 될수록 분담수업을 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교의 경우 가정교과 전공교사의 기술·가정의 전담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각 전공교과 교사에 의한 분담 수업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5.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앞으로 예상되는 제 8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기술·가정교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이미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부터 논의되어 왔던 점이다. 일단 제 8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분리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학습자의 학습부담의 경감이라는 목표가 앞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 수업시수보다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던 전제 하에 다음의 <표 10>에 보는 바와 같은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분리된다면 수업시수의 축소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업시수가 축소한다면 현행

<표 10> 8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의 분리에 대한 의견

	학교유형		교사 주전공		수업방식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산업	가정	분담	전담
분리된다면 수업시수의 축소도 감수해야 한다	57(44.2)	37(40.2)	30(44.8)	62(41.3)	44(38.6)	41(46.1)
분리되어 수업시수가 축소된다면 현행의 통합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52(40.3)	42(45.7)	28(41.8)	65(43.3)	50(43.9)	38(42.7)
모르겠다	20(15.5)	13(14.1)	9(13.4)	23(15.3)	20(17.5)	10(11.2)
합 계	129(100.0)	92(100.0)	67(100.0)	150(100.0)	114(100.0)	89(100.0)
검증치	$\chi^2 = 0.627$ n.s.		$\chi^2 = 0.269$ n.s.		$\chi^2 = 2.028$ n.s.	

단위: 명(%)

〈표 11〉 8차 교육과정에서 분리 시 요구되는 기술과·가정과의 주당 시수

단위: 명(%)

		학교유형		교사 주전공		수업방식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산업	가정	분담	전담
축소	기술1, 가정1	3(2.2)	4(4.2)	3(4.3)	4(2.6)	4(3.4)	3(3.2)
	기술1, 가정2	4(3.0)	7(7.3)	2(2.9)	9(5.8)	6(5.0)	3(3.2)
현행	기술2, 가정1	4(3.0)	1(1.0)	5(7.1)	0	2(1.7)	2(2.1)
	기술2, 가정2	78(57.8)	52(54.2)	41(58.6)	84(53.8)	75(63.0)	43(45.7)
확대	기술3, 가정2	4(3.0)	0	3(4.3)	1(0.6)	1(0.8)	3(3.2)
	기술2, 가정3	8(5.9)	10(10.4)	0	18(11.5)	7(5.9)	10(10.6)
	기술3, 가정3	31(23.0)	21(21.9)	14(20.0)	38(24.4)	23(19.3)	27(28.7)
	기술4, 가정4	3(2.2)	0	2(2.9)	1(0.6)	1(0.8)	2(2.1)
	기 타	0	1(1.0)	0	1(0.6)	0	1(1.1)
합 계		135(100.0)	96(100.0)	70(100.0)	156(100.0)	119(100.0)	94(100.0)

의 통합형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학교유형이나 교사의 주전공 및 수업방식에 따라 차이 없이 거의 반반정도 나타났다.

만약에 분리된다면 주당 얼마 정도의 수업시수를 요구하는지 알아본 결과(표 11), 현행보다 축소를 하거나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는 10%를 전후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학교유형(중학교 57.8%, 고등학교 54.2%)이나 교사의 주전공(기술·산업 58.6%, 가정 53.8%), 수업방식(분담 63.0%, 전담 45.7%)에 따라 차이 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이 기술 2시간·가정 2시간이었다. 다음이 기술 3시간·가정 3시간으로 학교유형이나 교사의 주전공 및 수업방식에 따라 대체로 20%를 상회하는 요구 시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담 수업방식의 교사(28.7%)가 분담 수업방식의 교사(19.3%)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었다. 기술 2시간·가정 3시간에는 학교유형이나 교사의 주전공 및 수업방식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학교유형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주전공에서는 가정과, 수업방식에서는 전담 수업방식의 교사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조사대상 교사의 약 90%정도가 분리된다면 현행보다 확대하여 적어도 각각 주당 2시간 이상의 수업시수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시수는 〈표10〉에서 조사대상교사의 약 반수가 분리된다면 수업시수의 축소도 감수해야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과는 모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분리시 하나의 교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

어도 주당 2시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필수시수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경남지역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 235명을 대상으로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실태, 교과내용 및 목표의 적합성 평가,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 향후 개정방향 등을 파악하여 7차 교육과정 하에서 운영되는 있는 기술·가정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분담수업과 전담수업이 거의 반반정도로 수행되고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전담수업이, 고등학교에서는 분담수업이 더 많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교사의 주전공을 배려한 분담수업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교사가 공히 근무해야 하는 점, 분담수업을 하더라도 법정시수를 채울 수 있을 만한 학습규모가 되어야 하는 점, 성적관리 등에서 야기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전담수업이 교과내용의 전문성에 많은 부담을 안고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가정교과 교사들이 기술교과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스스로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가정교과 교사들에 의한 전담수업은 수업의 질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시에 소재하는 학교보다도 군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일수록 전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

안하면, 전담하더라도 수업의 질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교사의 보충교육(부전공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각각의 전공교사가 순회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으나 많은 교사들이 순회지도시 소속감의 결여로 기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재교육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교사에서는 기술교과나 가정교과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에 의한 분담과 전담수업의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음을 밝혀둔다. 여기에는 이미 많은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교사들이 전혀 다른 교과목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가 많은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실습빈도와 내용 및 수업시의 애로사항 등에서 교과자체의 수업시수의 부족이나 실습시간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실습수업의 빈도가 매우 저조하였고 내용면에서 중·고등학교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교사의 주전공별로는 기술교과교사가 실습실 부족, 실습도구의 부족, 행정지원 부족 등을 더 많이 거론하고 있어서 고등학교와 기술교과의 물리적 시설 지원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어려움은 기술·가정교과가 시행된 첫해이므로 아직 교육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에도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수업시수 부족이나 물리적 시설 부족만을 내세우다 보면 결국은 소극적 수업이 되고 학생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교과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개선노력과 함께 교사들의 적극적인 수업제고 노력도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교과내용과 목표의 적합성 평가는 대체로 보통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나, 기술·가정교과 내용의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보여 통합교과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교과목표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이 보통이상의 비교적 높은 적합성 평가를 보인 반면, 적성계발 및 진로탐색, 미래생활설계 및 준비력 등에서는 보통을 전후하는 평가 수준이었다. 특히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 점을 진지하게 수용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기술·가정교과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현재보다는 좀더 진취적인 방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에서 교사들의 각각 자신들의 전공영역에 대하여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타 전공영역에 대하여는 낮은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전담수업을 할 경우 수업의 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또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교사들은 컴퓨터영역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가장 높은 활용도를 평가하고 있어서 컴퓨터영역은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중간적인 영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기술교과 교사들이 가정교과의 활용도를 기술교과의 영역과 비슷하거나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통하여 볼 때 가정교과 영역이 학생들의 생활교육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앞으로 8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기술·가정교과는 과연 분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수업시수를 매개로 하여 보았을 때, 분리와 현행유지에 대하여 조사대상 교사들의 태도는 반반이었다. 분리시 요구되는 수업 시수는 학교유형이나 교사의 주전공 및 수업방식에 따라 차이 없이 주당 각각 2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주당 2시간의 수업 시수는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시수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면 8차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에 대한 수정요구가 없는 이상 분리의 각각 주당 2시간의 확보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조사대상교사의 반 정도가 분리되어 수업 시수가 축소된다면 현행의 통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태도는 심리적 분리요구(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과의 통합 반대)와는 다른 현실적 대안으로서 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술·가정교과가 제대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리되어 독립교과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통합교과로서의 체계성이나 담당교사들의 확실한 보충교육, 충실한 실습수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교사들의 수업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기술·가정교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주전공이 가정교과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술교과 교사측의 충분한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교과보다 가정교과의 교사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런 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가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에 응해주신 경남지역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들에게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 접수일 : 2003년 7월 14일

□ 심사종료일 : 2003년 8월 26일

참 고 문 헌

곽노선·조재순(2002), 『기술·가정』교과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40-7, pp.127-140.
 교육부(1998),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부(1998),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박명주·윤택명(2001),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과정 관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pp.161-174.
 박순자, 신상옥(2000) 한국과 일본의 실과 및 기술·가정교육의 역사적 변천비교,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3, pp.65-76.
 박인애(1990),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서울시내 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일민·최유현(2000),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기술수업에 대한 인식차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기술교육의 방향, pp.51-72.
 손순옥(200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와 관련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순분(2002), <기술·가정> 통합 운영에 따른 중학교 기술과, 가정과 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화자 외(1996), 6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가정과 교사의 의식, 경남대학교 교육이론과 실천, 제6권, pp. 269-286.
 이승신·김민경·조정자(2003), 7차 교육과정의 학교소비자 교육내용 분석-중학교 1,2학년 「기술·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pp.231-248.
 이연숙(2002),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신광출판사.
 이연숙·조재순·곽노선(2002),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4-2, pp.1-14.
 채정숙(1993),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태도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1986), 제 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의 연구, 개발담신보고서.
 허정철(2001),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교과 설정의 배경,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3-1, pp.107-116.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경남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술·가정교과의 운영과 교과내용 및 목표의 적합성 평가,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에 대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235부를 우편조사 하였다.

기술·가정교과 담당교사의 주전공은 가정교과가 기술·산업교과보다 2배 가량 많았으며, 수업의 운영은 분담수업이 전담수업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하여 전담수업 비율이 높았다. 실습수업에서 내용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에 큰 차이가 없으나 빈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의 실습빈도가 적었으며, 특히 기술교과 영역은 1회도 없는 경우가 30%가까이 되었다. 수업시의 애로사항 등에서 교과자체의 수업시수의 부족이나 실습시간의 부족 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 교사의 주전공이나 수업방식에 따라 애로사항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즉 기술교과 교사들이 가정교과 교사들보다 실습실이나 실습도구 등의 부족을 거론하고 있었고, 전담수업이 분담수업에 비하여 교과의 전문지식 부족을 거론하고 있었다.

교과내용과 목표의 적합성 평가는 대체로 보통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나, 교과내용의 진로교육 측면, 기술·가정교과의 상호연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보여 통합교과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교육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교과내용의 전문성 및 활용도 평가에서 자신의 전공영역에 대하여는 높은 전문성과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타 전공영역에 대하여는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전담수업을 할 경우 수업의 질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컴퓨터영역은 각각의 교사가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가장 높은 활용도를 평가하고 있어서 기술교과와 가정교과 영역을 매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8차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기술·가정교과는 수업시수가 축소되더라도 분리할 것인지, 축소된다면 현행의 통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사대상교사들의 태도는 반반이었다. 분리 시 요구되는 수업시수는 주당 각각 2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각각 주당 2시간의 수업시수는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시수로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술·가정교과가 제대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리되어 독립교과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여건이 그러하지 못하다면 통합교과로서의 체계성이나 담당교사들의 확실한 보충교육, 충실한 실습수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교사들의 수업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기술·가정교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